

Q2

피해지 복원 시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자연복원은 자연환경보전림, 또는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남아있는 움푹으로 다 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연복원은 초기 투입비용이 적게 들고, 토양훼손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가가 필요로하는 목재를 생산하거나, 송이생산 등의 산주 소득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복원은 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경제수조림, 경관조림, 송이복원조림, 내화수림 조성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인공복원의 경우 같은 나이를 가진 수종으로 숲이 조성되기 때문에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입비용이 들고, 초기에 지표면 훼손이 발생합니다.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입지특성, 산주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